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4주간 운영

- 임시인력 약 5,500명 추가 투입... 종사자 과로 방지 및 원활한 배송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을 ‘추석 명절 택배 특별 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 평시(‘26.7월 평균) 대비 약 4.9% 물량 증가 전망(일 1,840만 박스 → 1,930만 박스)

- 이번 특별관리기간 동안 주요 택배사는 증가하는 물량 처리를 위해 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5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 간선차량 기사 1,600명, 택배 기사 1,200명, 상하차 및 분류인력 등 2,700명 등

- 또한, 종사자 안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명절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는 집화를 제한하여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화주들에게 택배 물량 분산, 집화 제한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도 성수품 주문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 주문’을 통해 택배 물량을 분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교통물류실 생활물류정책팀	책임자	팀 장	홍일산 (044-201-4152)
		담당자	사무관	마철훈 (044-201-4153)
			주무관	신웅재 (044-201-4155)

